

미국과 사우디, 또 유가의 '지정학적 리스크' 조성

- ▶ 트럼프 대통령은 신임 국무장관 폼페오 통해 이란 핵협상 재압박 예정, 사우디 MBS 역시 이란 핵 언급하며 불안감 조성 중. 이란 핵 협상 파기 불거질 경우 유가는 지정학적 리스크로 강세 구간 지속 가능함

트럼프는 폼페오를 통해 이란 핵협상 재압박 예정

Mike Pompeo should talk to Iran. Here's why.

The conventional wisdom in Washington has it that Mike Pompeo's appointment as secretary of state is bad news for the fate of the Iran nuclear deal. President Trump said as much himself on Tuesday, when he elaborated on his reasons for Rex Tillerson's firing. **"When you look at the Iran deal, I think it's terrible," Trump said.** "I guess [Tillerson] thought it was okay. So we were not really thinking the same. **With Mike, Mike Pompeo, we have a very similar thought process.** I think it's going to go very well." (하락)

자료 : Washington Post(2018년 3월 15일), SK증권

사우디 MBS 역시 이란 핵 언급하며 불안감 조성 중

Saudi Arabia will develop a nuclear bomb if Iran gets one, Crown Prince Mohammed bin Salman warns

Saudi Arabia would race to develop its own nuclear bomb if Iran was allowed to get one, Crown Prince Mohammed bin Salman has warned ahead of his first official trip to Washington as heir to the throne. "Saudi Arabia does not want to acquire any nuclear bomb but without a doubt, **if Iran developed a nuclear bomb we would follow suit as soon as possible,**" the 32-year-old prince told CBS News. He repeated his accusation that **Iran's supreme leader, Ayatollah Khamenei, was "the new Hitler" in the Middle East.** (하락)

자료 : The Telegraph(2018년 3월 15일), SK증권

- 지난 주 비슷한 시점에서 꽤 흥미로운 고위층의 정치적 언급이 2개 흘러 나왔습니다. 하나는 미국에서, 다른 하나는 사우디에서 나왔는데요. 공교롭게도 같은 주제를 다뤘습니다. 바로 이란이죠
- 먼저 미국부터 얘기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존 국무장관 렉스 틸러슨(Rex Tillerson)을 급작스럽게 해고하고, 후임으로 CIA 국장이었던 마이크 폼페오(Mike Pompeo)를 임명했습니다
- 한국은 이 소식을 두고 초점을 '북한'에만 맞췄지만, 현지에서는 '이란'도 크게 보고 있습니다. 폼페오는 재임 내내 이란 핵협상 파기를 주장해 왔었거든요
- 마침 트럼프는 "이란 딜(핵협상)은 정말 끔찍하다. 틸러슨은 괜찮게 생각했지만, 폼페오는 나랑 생각이 같다"고 얘기도 했습니다
- 사우디에서는 그 유명한 "Mr. Everything" 모하메드 빈 살만(Mohammed Bin Salman, 이하 MBS 통칭)이 말을 했는데,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습니다. 이란의 지도자 아야톨라 하메네이(Ayatollah Khamenei)를 "중동의 히틀러"라고 비난했네요
- 이란이 핵을 개발하면 사우디도 하겠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 왜 갑자기 미국과 사우디는 이란을 비난하고 나설까요? 제가 그 함의까지 헤아릴 수는 없겠지만, 한 가지는 명백해 집니다. 또 한 번 불거지는 유가의 중동 지정학적 이슈죠
- 얼마 전 이란은 "이제 감산으로 유가 올리는 거 하지 말고 증산하자."라는 의도를 보였는데, 아람코IPO에 신경이 곤두서 있는 MBS를 충분히 자극할 만한 발언이었습니다
- 여하튼 이란 산유량이 다시 줄어들면, 유가는 오를 테니까요. 올해 유가의 포인트는 역시 '지정학적 리스크'입니다

• 작성자는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이 본인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신의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본 보고서에 언급된 종목의 경우 당사 조사분석담당자는 본인의 담당종목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보고서는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 종목별 투자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투자판단 3단계 (6개월 기준) 15% 이상 → 매수 / -15%~15% → 중립 / -15% 미만 → 매도

